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들

기획시리즈
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④

차금봉—"노동은 사회근본" 선언한 노동운동의 선구자

박 애 림
(한국역사연구회 회원)
(연세대석사과정졸)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로 성장

차금봉은 1898년 12월8일 서울에서 아버지 차용진과 어머니 이성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5살때인 1902년부터 1911년까지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1916년 비동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용산기관차 화부견습공으로 취직해 기관수가 되었으며 이후 그의 직업은 전유세직공, 인쇄직공, 신문배달부 등으로, 차금봉은 바로 식민지 조선이 처한 가장 첨예한 모순의 담지자였던 것이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제는 한국을 식량, 원료공급지와 상품판매지로 재편성해 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계급은 매우 엄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었다. 예컨데 노동자의 임금은 당시 세계적인 저임금이라고 악명이 높았던 일본인노동자 임금의 4—6할에 불과하였다. 또한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 정도였으며 심지어 16시간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인 자본가들이 가한 민족적 차별과 멸시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은 민족적, 계급적 모순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며, 차금봉 역시 그러한 조선의 노동자였다.

민족해방운동의 전환점—3·1운동

전민족적으로 독립을 외친 3.1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을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당시 선언적 시위방식에만 머물렀던 운동지도부와 달리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이 보여준 투쟁열기는 민족해방운동에서 새로운 운동주체와 지도이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며 특히 노동운동은 식민지현실을 돌파할 새로운 역량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1910년대를 통해 10건 미만이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1918년에는 50건으로 급증했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3·1운동 당시 노동자들은 운동시초부터 학생,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과감하게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운동이 중단된 뒤에도 더욱 끈기있게 동맹파업을 전개하여 그들의 뛰어난 투쟁역량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때 차금봉 역시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철도노동자를 조직해 파업시위를 계획하였으나 발각되어 해고되었다. 그러나 그는 3월22일 전차 차장·공장직공·사무노동자·일반시민 등 7~8백명과 함께 독립문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3월27일에는 만철경성관리국 조선인 노동자들의 시위를 조직하는 한편 경성역 앞에서 '조선노동대회' '조선독립'등이 적힌 깃발을 들고 수천명 노동자의 파업시위운동을 지도하였다.

최초의 근대적 노동단체, 조선공제회 참여

3·1운동기에 고양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조선의 현실에서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사회의 개조'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상조류들을 섭취한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노동단체를 만들고자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4월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노동단체로서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되었다. 창립이후 전국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20여개에 달하는 지회와 1만8천명에 달하는 회원(1921년 3월 현재)을 거느린 전국단위 노동단체로서 성장한 조선노동공제회에서 차금봉은 노동자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그 창립에 참여하여 초대 교양부간사로 활동하였다.

노동단체이면서도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조선노동공제회는 내적으로 상호이질적인 노선이 병존하고 있었다. 즉 실력양성론적인 노선과 사회주의노선이 그것으로, 전자는 노동문제를 인격주의에 입각하여 과학함으로써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관념적인 정신적 개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따라 노동자교육과 생활난 구제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인격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가의 온정과 자선을 요구하는 노자협조주의적, 개량주의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후자는 노동문제의 근원을 자본주의 제도에서 찾았다. 이들은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제도를 변혁하여 공산사회로 '개조'할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노동문제의 해결도 노동조건의 개선에만 만족하는 개량주의적 방식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에 입각한 사회제도의 변혁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력양성론에서 사회주의 노선으로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노선이 병존하고 있었지만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 직후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은 노동야학, 강연회, 소비조합 설치 등 실력양성론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2년 4월의 제3회 정기총회에서 노동조합과 소작인조합을 조직할 것과 주요내용으로 한 노농운동적 노선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선전환은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을뿐 아니라 차금봉을 중심으로한 노동자측의 요구도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즉 차금봉은 제3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최상덕 등의 노동자들과 함께 지식인배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지식계급이나 유한계급은 진정한 노동운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 이러한 계급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노동계급의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차금봉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지식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임원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핵심은 조선노동공제회가 상당이후 2년동안 수행한 활동이 진정한 노동운동이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이후의 활동은 계급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금봉 등의 주장은 조선노동공제회가 노선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1922년 4월 의욕적인 노선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조선노동공제회는 본격적인 노농운동을 전개하려는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이와함께 경성분회에서 내부분열이 일어났으 동상제회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관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차금봉은 조선노동공제회가 처한 문제의 근원은 조직의 주도권을 지식분자가 쥐고 있는 반면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지도적 지식분자를 제외하고 조선노동공제회 내부를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차금봉은 노동자들을 규합하여 1922년 9월 23일에 열린 조선노동공제회의 임시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출한 뒤 10월 13일에는 전(前) 위원 15명을 출회시켜 조선노동공제회를 순수한 육체노동자로만 구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로써 차금봉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조선노동공제회는 창립 이후 견개하였던 계몽활동과 공제활동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즉 조선금융직공조합, 경성신문배달조합의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1923년 7월에는 경성에서 유기직공들이 동맹파업을 전개하자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강연회도 사회주의자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회의 내용에 계급의식적인 성격을 강화시키는 한편 차금봉 자신도 '조선노동공제회에 대하여' '현하의 조선사회'등의 제목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의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노동공제회는 이후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순수육체노동자들로 구성된 것은 곧 재정압박의 질곡을 가져왔고 1923년 7월경부터는 이전한 사무소의 집세를 내지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당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2년 만에는 당분간 휴회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중운동속에 뿌리내리는 사회주의

한편 1923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 각지에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급속히 성장하고 사회주의자들과의 연계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이면에서는 국내에 공산당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꼬르뿌로 국내부가 조직되어 서울청년회를 제외한 국내외의 유력한 사회주의 제분파가 결집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대중운동이 고양됨에 따라 각지에 산재한 대중단체들을 전국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꼬르뿌로 국내부는 조선노동연맹회와 남선(南鮮)지방의 노동단체를 결집한 남선노동동맹을 기반으로, 서울청년회는 전조선노농대회를 기반으로 각기 대중운동의 전국적 조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 양 계열의 합동에 의해 1924년 4월 20일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조직상의 실패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초유의 전국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와 그 책임자로서 차금봉이 갖고 있는 명망성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어서 조선 노농총동맹의 결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즉 차금봉은 전조선노동대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선노농총동맹의 창립인 및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노농총을 기반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1927년에는 조선노농총동맹의 이름으로 민앙양화지공조합동맹의 동맹파업에 대하여 격분을 발송하고 격려, 선동하여 파업을 확대시킨 혐의로 일제에 의해 검속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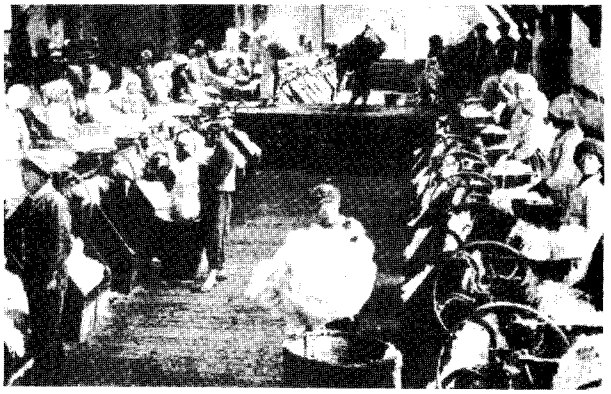
최초의 노동자 출신 당수로 선출

이후 차금봉은 신문배달을 하면서 1926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8년 2월 이른바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김세연, 최창익등 당간부 다수가 검거되어 조직이 파괴되자 2월 27, 28일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군에서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재건된 조선공산당이 3월에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차금봉이 중앙책임비서로 임명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노동자출신 당 최고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차금봉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은 3월에서 6월에 걸쳐 당 간부 및 부서결정, 각 도간부선정, 당세확대계획, 당정치강령채택, 코민테른에 주요간부 파견 등의 활동을 통해 당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당 기관지 '조선지광'을 경영하던 중앙집행위원인 이성태가 검거되고 7월5일에는 한명찬과 다른 몇명의 중앙집행위원이 검거되었다. 이들의 검거를 계기로 일제가 보다 철저한 수사를 전개한 결과 당 조직이 탄로됨으로써 결국 조선공산당은 와해되었으며 차금봉도 검거되었다. 차금봉은 경찰의 신문을 받을 때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혹한 고문을 받아 걷는 것 조차 불가능하였다. 결국 이 때문에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29년 1월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2세였다.

차금봉이 언제, 어떻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자료의 한계로 밝히기 어렵다. 다만 그가 1923, 4년경에는 서울파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또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그 당수까지 된 점에서 그의 사상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차금봉의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글이 1924년 3월 31일자 '시대일보'에 실려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진도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면의 거의 대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조선은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운동도 일어날 수 없으며, 노동쟁의가 있다면 그것은 소수분자의 선동에 불과할 것이라는 '노동운동 시기상조론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서두를 시작한 이 글에서 훼손되지 않고 문장으로 남아있는 내용은 아래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해 지열하게 살다 간 차금봉이 남긴 유일한 외침이기도 하다.

"생활을 유지하여 가는, 다시 만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이외에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소위 노동자라 하는 사회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의 결정이 내외를 물론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본가의 돈주머니를 무겁게 하는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불꽃의 삶을 살다간 노동운동의 선구자



◇차금봉은 일찍부터 식민지 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 사진은 일제하 제련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글 싣는 순서

1. 총론—일제하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
2. 이동휘—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
3. 김사국—비운의 사회주의운동 지도자
4. 차금봉 —"노동은 사회근본" 선언한 노동운동의 선구자
5. 이재유
6. 박 달
7. 허정숙
8. 이기영

'노동은 신성한 것' 믿음속 계급의식 확대 노력
지식계급배척, 최초의 노동자출신 당수로 족적 남겨

내일의 해태인을 찾습니다

도전은 힘차게! 보람은 알차게!

인간존중의 기업 해태가 해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를 모십니다. 해태에서 더 넓은 세계, 더 밝은 미래를 만나보십시오.

신입사원 모집안내

1. 모집부문 및 회사

구분	응시직군	모집회사	전공학과 인문계	전공학과 이공계	모집인원	응시자격
그룹사	부품	해태실업(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섬유공학	000명	1. 정규 4년제대학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1994년 2월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및 기 취득자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자는 면제자 3. 이공계 응시자중 학점중 소지자는 우대함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주)해태유통	상경, 법정, 인문계열	-		
	건자	해태전자(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전자, 기계, 산업공학		
		해태제과(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식품공학, 전산, 디자인 관련학		
	식품	해태음료(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산업공학, 식품공학, 디자인 관련학		
		해태산업(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식품공학, 전자계산학		
현대화사		(주)코맨드	신문방송, 광고, 경영 및 기타 상경, 법정, 인문계열	시각디자인학		

2. 전형방법

가. 1차 : 필기시험(영어, 상식) 및 성격검사
1)장소 : 1993. 11. 7(일) 09:00 2)장소 : 중앙일보하고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3. 제출서류

가. 입사 지원서(소정양식) 2부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3. 10. 11(월)~10. 16(토) (9:00~17:00 (단, 토요일은 13:00시까지)
나. 직접 방문교부처

지역	교 부 처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	해태그룹 종합조정실	서울 · 마포구 마포동 140(다보빌딩 13층)	(02) 716-8811
경남	해태 부산지사	부산시 북구 화명동 246-1	(051) 92 8711
경북	해태 대구지사	경북 경산시 백천동 115-1	(053) 812-7846
전남	해태 광주지사	광주시 북구 양산동 408-2	(062) 571 2316
전북	해태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팔복동 1가 238-3	(0652) 211-8256
강원	해태 원주지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0-1	(0371) 43-0455
충청	해태 대전지사	대전시 동구 가양2동 424-1	(042) 627-0207

다. 접수처 : 해태그룹 종합조정실(서울) 에서만 접수(문의전화 : 716-8811, 717-5765)

5. 기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나. 응시원서는 상기접수처에 직접 접수분에 한함. (우편등사원서는 접수치 아니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1993. 10

해태인력관리위원회